

2019년 11월 6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무역협상 낙관론 불구하고 혼조 마감

### S&P500 영업이익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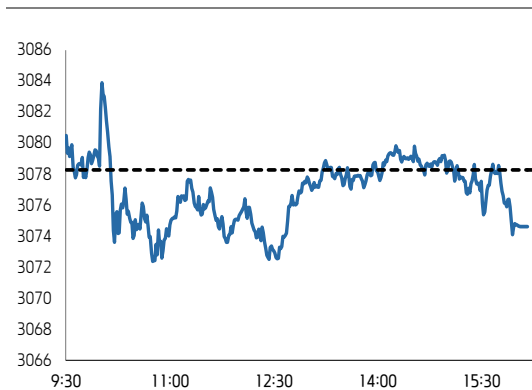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무역협상 기대, 밸류에이션 부담

미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낙관론이 확산 되자 상승 출발. 특히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를 취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폭을 확대했으며, 소매업종과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 그러나 최근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어지며 일부 종목에 대한 매물 출회되며 지수 상승 제한. 결국 미 증시는 매물 소화과정을 보이며 보험권 혼조 마감(다우 +0.11% 나스닥 +0.02%, S&P500 -0.12%, 러셀 2000 +0.14%)

미-중 1 단계 무역협상 서명을 앞두고 9 월 1 일부터 발효된 1,110 억 달러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12 월 15 일 부과 예정된 1,600 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도 서명이 진행된다면 철회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품목 대부분 소비재가 많아 연말쇼핑시즌을 앞두고 일부에서 트럼프가 이를 연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던 사례. 실제 시행이 된다면 연말 쇼핑시즌 매출 증가 기대가 높아질 수 있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을 기대할 수 있음. 관련 보도 이후 의류 및 소매유통업체들이 강세. 실제 진행된다면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시작된 이래 부과된 관세가 처음으로 제거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주식시장은 의외로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매물 출회되는 등 보험권 등락에 그침. 이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일부 종목들에 대한 매물이 출회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비록 3 분기 실적 발표에서 76%의 어닝서프라이즈가 이어졌으나, 과거 1,2 분기에도 75% 내외의 어닝서프라이즈가 발생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점. 1,2 분기에 이어 3 분기는 물론 4 분기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적 부진 우려가 높다는 점. 그런 가운데서도 지수는 상승해 S&P500 12 개월 Fwd PER 이 10 년평균(14.9 배), 5 년평균(16.6 배)를 넘어선 17.2배를 기록하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이 차익 매물 출회를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국가	종가	D-1
KOSPI	2,142.64	+0.58	홍콩	27,683.40	+0.49
KOSDAQ	672.18	+0.56	영국	7,388.08	+0.25
DOW	27,492.63	+0.11	독일	13,148.50	+0.09
NASDAQ	8,434.68	+0.02	프랑스	5,846.89	+0.39
S&P 500	3,074.62	-0.12	스페인	9,407.90	-0.09
상하이종합	2,991.56	+0.54	그리스	873.34	-0.67
일본	23,251.99	+1.76	이탈리아	23,364.82	+0.2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소매유통업종 강세

우버(-9.85%)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 이후 매물 출회되며 급락 했다. 온라인 광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인 테라리아(-9.33%)가 부진한 실적과 예상을 하회한 가이던스 발표한 뒤 급락 했다. 로쿠(-0.67%), 트레이드 데스크(-1.66%)도 동반 하락 했다. JP모건(+0.22%), BOA(+1.30%), 웰스파고(+1.10%)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과 금리인하 기대가 완화된 데 힘입어 상승했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링센트럴(+2.73%)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AT&T와의 관계를 확대했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한편, 비온드미트(+2.08%)는 투자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NXP세미컨덕터(+0.66%)는 미주호가 자동차 및 산업 트렌드의 우호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높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했다. 메이시스(+5.43%), 콜스(+2.24%) 등 백화점 업체와 갭(+2.22%), L브랜드(+1.37%) 등 의류업종, 월마트(+1.10%), 타겟(+1.19%) 등 소매유통업체들은 미-중 소비재 관련 관세 철회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 연말 쇼핑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에 기반해 상승 했다. 월그린부츠(+2.62%)는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13%	대형 가치주 ETF(IVE)	+0.10%
에너지섹터 ETF(OIH)	-0.81%	중형 가치주 ETF(IWS)	0.00%
소매업체 ETF(XRT)	+1.24%	소형 가치주 ETF(IWN)	+0.09%
금융섹터 ETF(XLF)	+0.37%	대형 성장주 ETF(VUG)	-0.30%
기술섹터 ETF(XLK)	-0.12%	중형 성장주 ETF(IWP)	-0.3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1%	소형 성장주 ETF(IWO)	+0.29%
인터넷업체 ETF(FDN)	-0.36%	배당주 ETF(DVY)	+0.04%
리츠업체 ETF(XLRE)	-1.7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3%
주택건설업체 ETF(XHB)	-0.5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2%
바이오섹터 ETF(IBB)	+0.02%	미국 국채 ETF(IEF)	-0.54%
헬스케어 ETF(XLV)	-0.71%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81%	물가연동채 ETF(TIP)	-0.19%
반도체 ETF(SMH)	+0.05%	Long/short ETF(BTAL)	-0.8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3.17	+0.45%	+3.47%	+9.89%
소재	373.87	+0.25%	+1.37%	+8.13%
산업재	685.41	+0.20%	+2.80%	+9.75%
경기소비재	958.64	+0.14%	+1.05%	+3.92%
필수소비재	622.98	+0.25%	-0.43%	+0.62%
헬스케어	1,083.84	-0.89%	-0.43%	+6.26%
금융	489.12	+0.42%	+2.05%	+10.05%
IT	1,491.04	-0.14%	+2.12%	+7.88%
커뮤니케이션	173.83	-0.07%	+1.64%	+5.45%
유틸리티	317.71	-1.02%	-1.20%	-2.02%
부동산	235.74	-1.76%	-2.82%	-2.6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매물 소화과정을 보일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0% MSCI 신흥 지수 ETF 는 0.57%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599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0.10pt 상승한 284.6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6.1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9월 1일 부과된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더 나아가 12월 15일 예정된 추가 관세도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실제 이러한 관세 철회가 되거나 연기된다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비해 부진했던 요인은 기업실적 부진이었고, 이는 글로벌 교역량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관세가 철회된다고 해도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은 적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된다.

그러나 길었던 미-중 무역분쟁에서 처음으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취소된다면 향후 글로벌 교역량 증가를 기대해 볼만하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이 확대될 여지가 높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은 희망과 기대일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발표될 때까지는 지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당장은 최근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매물의 소화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보험권 등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애틀란타 연은 GDPNow 미 4분기 GDP 성장률 1.0% 전망

9월 미국 수출입 통계에서 수입은 전월 대비 1.7% 감소했으며, 수출도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기기 등 자본재 수입이 1.9% 감소 했고, 휴대폰, 의류등 소비재는 4.4% 감소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525억 달러 적자로 발표되었다. 한편, 대 중국 무역적자는 280.3억 달러로 전월 대비 3% 감소 했다.

10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2.6)이나 예상(53.5) 보다 개선된 54.7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53.7→55.6), 고용지수(50.4→53.7) 등 모두 상향 되었다.

9월 미국 채용공고는 전월(730.1만건) 보다 감소한 702.4만건을 기록했다. 이로서 4개월 연속 감소 중이며 이직률도 전월(2.7%) 보다 감소한 2.6%를 기록해 고용시장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주 금요일 뉴욕연은의 Nowcasting 은 4분기 GDP 성장률을 0.8%로 전망한 가운데 오늘은 애틀란타 연은의 GDPNow 는 1.0%로 전망해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 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장기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확산되자 상승 했다. 특히 관세 철회 기대가 유입되자 향후 수요 증가 가능성이 부각된 점이 상승 요인이었다. 한편, OPEC 컨퍼런스에서 원유 수요가 줄어 들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미국 셰일오일의 성장이 급격히 증가해 향후에는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 및 무역적자 감소 등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협상 낙관론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유로화는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12 월 12 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과 노동당 간 정치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엔화와 스위스 프랑 등 안전자산은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부각되자 달러대비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5% 가까이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개선과 중국과의 무역협상 낙관론이 부각되자 상승했다. 미 언론에서는 1 차 협상에 서명이 진행되면 지난 9 월 1 일 부과된 관세 철회와 12 월 15 일 추가되는 관세를 연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편,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소비지출이 지속되면 미국 경제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이라고 주장하는 등 연준위원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상승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장기물의 상승폭이 컸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 여파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강세와 무역협상 낙관론의 영향을 받아 혼재되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30%, 철근도 1.38%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7.23	+1.22	+3.04	Dollar Index	97.923	+0.43	+0.24
브렌트유	62.96	+1.34	+2.83	EUR/USD	1.1074	-0.49	-0.34
금	1,483.70	-1.81	-0.47	USD/JPY	109.14	+0.52	+0.23
은	17,568	-2.76	-1.47	GBP/USD	1.2884	0.00	+0.17
알루미늄	1,811.00	-0.22	+3.25	USD/CHF	0.9926	+0.48	-0.14
전기동	5,940.00	+1.07	+0.21	AUD/USD	0.6894	+0.15	+0.42
아연	2,498.00	-1.61	-1.81	USD/CAD	1.3160	+0.07	+0.56
옥수수	381.75	-0.39	-1.17	USD/BRL	3.9933	-0.61	-0.15
밀	515.25	+1.08	+0.73	USD/CNH	7.0005	-0.46	-0.92
대두	934.25	-0.40	+0.08	USD/KRW	1157.50	-0.15	-0.47
커피	105.80	+2.07	+6.92	USD/KRW NDF 1M	1156.14	-0.44	-0.9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850	+7.25	+1.10	스페인	0.325	+1.90	+4.00
한국	1.820	-1.70	+5.40	포르투갈	0.244	+1.40	+1.90
일본	-0.122	+5.40	-2.00	그리스	1.194	+1.60	-3.00
독일	-0.309	+4.20	+4.20	이탈리아	1.027	+3.30	+4.10